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7일 박노철, 신석철, 정영태의원 등 9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0. 15)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의원)

주 문

- GS과워(주)의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추진을 즉각 중단·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별지와 결의안을 채택한다.

제안이유

- 부천열병합발전소는 199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부천시 중동 및 상동신도시 지역에 열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2000년도에 GS과워(주)가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 450MW급 시설을 609MW급의 대규모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 2기의 증설은 부천시의 뉴타운 개발과 인천시 삼산지구택지 개발에 따른 수요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부천열병합발전소는 부천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부천시 관할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으로써 인천시 택지개발지구에 열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임.
- 따라서, 인천시 부평구 및 계양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은 도시계획 수립시 또는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계획·건설하도록 하고, 인천지역에 공급하던 부천 GS파워(주)의 열 공급량을 부천 관내지역에 공급한다면 현 시설의 증설없이도 부천시의 향후 모든 수요를 충족할 것임.
- 이에 GS파워(주)는 부천열병합발전소의 대규모 추가 증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를 밝히고자 함.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제504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발의년월일 : 2009. 10. 7.

발의자 : 박노설·정영태·신석철의원등9인

1. 주 문

- GS과워(주)의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추진을 즉각 중단·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별지와 결의안을 채택한다.

2. 제안이유

- 부천열병합발전소는 199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부천시 중동 및 상동신도시 지역에 열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2000년도에 GS과워(주)가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 450MW급 시설을 609MW급의 대규모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 2기의 증설은 부천시의 뉴타운 개발과 인천시 삼산지구택지 개발에 따른 수요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부천열병합발전소는 부천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부천시 관할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로써 인천시 택지개발지구에 열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처사임.
- 따라서, 인천시 부평구 및 계양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

대시설은 도시계획 수립시 또는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계획·건설하도록 하고, 인천지역에 공급하던 부천 GS파워(주)의 열 공급량을 부천 관내지역에 공급한다면 현 시설의 증설없이도 부천시의 향후 모든 수요를 충족할 것임.

- 이에 GS파워(주)는 부천열병합발전소의 대규모 추가 증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를 밝히고자 함.

붙임 : 결의문 1부.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문

GS파워(주)의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부천열병합발전소는 부천중동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3번지에 건설되어 1993년도부터 가동 및 운영을 시작하여 부천 중동 및 상동 지역에 열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로써 2000년도에 GS파워(주)가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초부터 현 450MW급 시설에 609MW 급의 대규모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의 뉴타운 개발과 인천 삼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수요증가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부천열병합발전소는 부천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부천시 관할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로써 이곳에 다시 대규모로 시설을 증설하여 인천 택지개발지역에 열 난방을 공급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GS파워(주)에서 생산되는 열 공급량은 1,016Kcal/hr로 부천지역 약 67,000세대, 인천 부평과 계양지역에 약

69,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삼산지구택지개발을 명분으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계양구의 도시계획 수립시 또는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계획·건설하도록 하고 인천지역에 공급하던 부천 GS파워(주)의 열 공급량을 부천 관내지역에 공급한다면 부천지역에는 더 이상추가 증설 없이도 모든 수요(뉴타운 사업개발 등)를 충족하고도 남을 것이다.

부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및 운영으로 인해 그간 부천시 지역주민들의 환경상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2009년 4월 20일 부천시에서도 GS파워(주)의 2호기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를 대기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GS파워(주)와 환경부, 지식경제부에 2호기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더 이상 부천시민들의 환경상의 피해와 희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에 열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GS파워(주)에서 추진하는 부천열병합발전소 대규모 2호기 추가 증설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부당한 일이다.

GS파워(주)는 부천열병합발전소 대규모 추가 증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하여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에 열 난방을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부천열병합발전소 추가 증설 추진을 즉각 중단·백지화 할 것을 87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는 단호히 요구한다.

2009. 10. .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